

■ 대법원장 '발언 파문' 일단락... 법조 3륜 득실은?

법조계 권위 동반 추락... 개혁 주도권 법원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 일선 법원 순회에서 나온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과 관련해 26일 전국 법원 순회 일정의 마지막 방문지인 서울고법·중앙지법에서 발언의 진의를 해명하고 사과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훈장을 통해 "일선 법원을 방문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답시고 거친 말을 하고 말 실수를 했다. 많은 실수를 해서 법원 가족 여러분께 상처가 됐다면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또 우리의 원칙, 나아갈 방향을 얘기하다 보니까 심하게 얘기하게 됐는데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과 함께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만한 얘기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의 파문은 일단 봉합됐지만 '법조 3륜'에는 다시 이어 불길 수 있는 틈이 생겼다. 사법부와 검찰, 변협은 벌거벗은 논란 속에서 이미지와 명예가 실추됐다. 그러나 사법 수요자의 처지에서 보면 이번 논란은 근접할 수 없었던 법조계의 권위가 스스로 해체되고, 사법개혁의 주도권을 사법부가 갖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성과로 꼽힌다.

공판중심주의 부각 성공

◇내부 결속 강화... '익숙한 것과 결별'=이 대법원장의 잇단 발언은 사법부에 재판의 주도권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판중심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검찰 수사 기록에 의존하면서 쉽게 재판 하던 관행도 버리고, 학연과 지연으로 얹혀 걸끄러운 변호사와 법조 3륜의 '대등한 관



서울 지방·고등법원 직원들이 26일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 법원장 "말실수" 사과, 갈등 봉합 法·檢·辯 자성 자극한 것은 긍정적

계'가 아니라 재판의 주관자와 보조자로 만나는 공개적 주문인 셈이다.

관사들은 이 대법원장의 발언과 이후 검찰과 변호사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명분에서 밀릴 게 없다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고도의 계산 속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 대법원장으로서는 취임 1년 동안 내부를 향해 개혁을 당부했을 때보다 최근 1주일의 논란 속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뒀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 증거분리제 출제 확대시행

◇개혁 속도 맞추는 검찰=검찰이 25일 공

관중심주의의 핵심 중 한가지인 증거분리제 출제제도를 전격 확대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사법부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이따금 공판중심주의의 주도권을 가지라고 말한 것도 검찰이 자칫 명분 없는 싸움에 휘말려 개혁 대상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에서 얻은 게 없는 검찰은 사법부가 물고 가는 개혁 마차에서 '낙마'하지 않으려면 내부 개혁을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됐다.

변호사들 "전문성 강화해야"

◇전문성으로 승부를 겨루어야 하는 변호사=이 대법원장은 광주고법 순시 때 자신이 변호사 생활을 해봐서 잘 안다며 "판사실에서 이뤄지는 그 판사들의 핵심에 내가 좀 개입해보고 싶다.

그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변호사에게 돈을 준다"라고 전관예우에 일침을 놓았다.

변론 입장에서 보면 일부 변호사들의 행태를 두고 변호사들이 모두 그런 것처럼 비하하는 면도 없지 않고, 이 대법원장도 '말실수'라며 간접적으로 사과했다.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만 빼면 이 대법원장의 비판은 오래된 법조계의 관행을 건드렸고, 변호사들은 공판중심주의에 맞춰 전문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오늘 회감 조출하게 보내기로

노무현 대통령은 만 60세 회갑인 27일(음력 8월 6일) 별도의 연회를 열지 않고 청와대에서 참모진 및 국무위원들과 식사를 하며 조출하게 생일을 보낸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회갑일에 청와대 수석보좌관들과 조찬을,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 것 외에 특별한 행사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저녁 때는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국회균형발전협의체

비 수도권 여야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균형발전협의체는 26일 오후 재정경제부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모임 공동회장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재경부가 28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포함될 것이라는 대肆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참여정부의 근간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훼손하고 지방의 경제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북에 원심분리기 20개 제공"

무사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공개

페르베즈 무사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지난 1990년부터 북한의 핵기술자들이 파키스탄을 방문,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과정에 필수적인 원심 분리기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았으며 '이슬람 폭탄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의 영웅인 칸 박사는 북한에 20여기의 원심분리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무사라프 대통령은 25일 발간한 자서전 '사선에서'(In The Line of Fire)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지난 2003년 9월 유엔 정상회담

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권유로 조지 테니 당시 미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만났으며, 당시 테니 칸 박사가 북한에 넘겨준 P-1 원심 분리기 설계도를 보여줌으로써 칸 박사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무사라프 대통령은 "이미 1987년부터 처음에는 이란 부터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칸은 북한에 '거의 20개'(nearly two dozen)의 P-1 및 P-2 원심분리기와 유량계, 원심 분리기에 쓰이는 특수한 기름들을 넘겨 주고, 1급 비밀인 원심분리기 공장에 대한 방문을 포함한 기술 지도도 해주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업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 직통 : (062)227-9600, 220-0524, 0525
• FAX: 227-9500
◆ 광주은행: 001-107-228160 ◆ 농 협: 617-01-108334
※ 예금주(주) 광주일보사

▶ 주식회사 씬테크링전기
수신지: 001-107-228160
대표이사: 이 신 휴

2006년 9월 27일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년 9월 27일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6년 9월 27일

▶ 광주지방법원 청원지원
2006년 9월 27일

▶ 광주지방법원 진도지원
2006년 9월 27일

▶ 광주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년 9월 27일

▶ 광주지방법원 함평지원
2006년 9월 27일

▶ 광주지방법원 화성지원
2006년 9월 27일

▶ 광주지방법원 여수지원
2006년 9월 27일

▶ 광주지방법원 익산지원
2006년 9월 27일

▶ 광주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년 9월 27일

▶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6년 9월 27일

▶ 광주지방법원 진안지원
2006년 9월 27일

▶ 광주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년 9월 27일

▶ 광주